

어떻게 하고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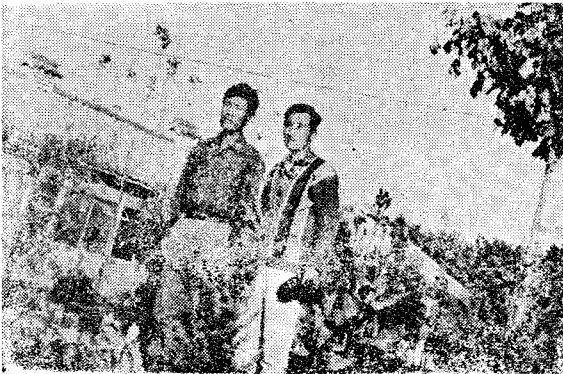
편집자 주……이번호에는 맨손으로 시작해서 대기업을 이룬, 아니 아직 발전하는 도상에 있는 유성에 소재하고 있는 형제부화장을 찾기로 하였다. 통상 닭 한마리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알을 낳고 또 그것으로 병아리를 사고 이러한 식으로 사람들은 지부하는 방법을 얘기한다. 그러나 실제 닭 한마리에서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여기에 실제 그 전 설의 주인공이 있는 것이다.

.....
30살 · 28살
.....

충남 대덕군 유성면 장대리에 소재하고 있는 형제 부화장을 찾은 것은 10월 중순경. 가을 햇살이 넓은대 지위에 그 마지막 빛을 뿌리고 있었다. 전화로 물어본 형제부화장의 위치에 대해 반갑게 대답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어 보여서 그리고 꽤 큰 규모라는 얘기만 듣고 왔던 기차는 마침 마중 나온 동생(나영춘씨)이 너무 젊게 보여 『실례지만 몇살이죠?』라고 묻지 않을수 없었다. 『28살입니다』 『네?』 『재 형은 아직 30살 밖에 되질 않는걸요』 『에?』 기차는 또한번 놀랄수밖에 없었다. 그럼 도대체 이 젊은 두사람이 어느 사이에 이렇게 큰 양계장을 이룩했던 말인가? 이 의문은 들어가서 차분히 얘기하는 나재춘 사장의 얘기를 들을때 전부 해결되었다. 안내자가 없었더라면 양계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오인할만큼 덩수룩하게 차리고 있는 그에게 첫 질문을 던져 보았다.

.....
30살에 17년의 양계생활
.....

제가 양계라고 시작한 것은 13살 때부터 였습니다. 당시 규모(?)는 한마리 계사요. 저와 같이 방에서 자고 먹었습니다. 저의 고향은 황해도 황주입니다.



<사진은 형제양계장의 나재춘 나영춘 두형제>

피란당시 남하한 저의 가족은 유성에 정착했습니다. 이루말할 수 없는 기아선상에서 강원도 원주로 가서 피난된수용소에서 17개월간을 지냈으나 지식들을 무식한 사람으로는 만들고 싶지 않다는 아버지의 강한집념이 다시 유성으로 옮겨왔다. 그러나 생활은 마찬가지로였다. 매일 화장품행상을 하는 아버지는 겨우 식구들의 입에 풀칠을 던치 않을 정도였다. 국민학교에 다니던 저는 이웃집 할머니의 오리를 15마리 길러주고 있었읍니다. 그 할머니는 그 이듬해 겨우 판자집을 지어서 따로 살림을 나가는 저에게 오리 한마리를 주셨읍니다. 저는 알을 잘못 낳는 오리보다 닭이 좋을것 같아서 오리를 팔고 닭을 한마리 샀읍니다. 지금 생각하던 도대체였지요. 그 도태계를 제가 저의 방에서 키우던서 매일 시장에서 싹겨져기 개구리 등을 잡아서 끓여서 먹었습니다. 닭이 색깔이 변하면서 생기를 띠우고 알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알이 모이면 가서 팔고 팔고 해서 그 돈으로 닭을 사고 또 사고했습니다. 드디어 약 30마리의 닭이 그 해 가을에 생겼읍니다. 저와 동생의 기쁨은 하늘을 뚫을만큼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
뉴켓슬—그 무서운 이름
.....

그러던 어느날이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닭이 비실거리며 모이를 먹지 않더니 모조리 죽어 넘어졌습니다. 뉴켓슬이었습니다. 저는 얼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집에서 밤낮 닭에게만 붙어있던 저에게 아예 이 기회에 그만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물을 기른다는 것은 저에게 취미이상의 일종의 집념이랄까 하는 저의 삶의 보람이 있었습니다. 간신히 어떻게 마련을해서 15원씩 하는 땅 30평을 사고 다시 병아리 100마리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손으로 흙벽돌을 찍어서 움막을 짓고 병아리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료—닭을 먹일 사료가 없었습니다. 중후경도 되는 병아리 60마리를 팔아서 40마리의 사료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며칠이나 지탱하겠습니까? 닭은 3일을 굶겼더니 모두 굶어죽었습니다. 그러나 팔아 지지가 않았읍니다. 그때의 닭은 저에게 저의 생명 이상의 무엇이

형제 양계장 편

었습니다. 그 다음해 봄 그러니까 18살나는 해에 또 병아리 200수를 사왔습니다. 닭을 열심히 길렀습니다. 지난번의 실패한 요인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며 만회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또 병아리 300수를 구입했습니다. 마침 국가에서도 양계업을 장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00수의 닭들이 산란을 시작해서 60% 산란율을 보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생산과잉으로 인한 양계업의 폐망이 가까워져서 도저히 계란값만으로는 사료값도 되지 않습니다. 부근에서 양계를 하고 있던 양계가들이 하나둘 쓰러지더니 전 부망하고 자본이 툭툭한 몇사람만 남아서 지탱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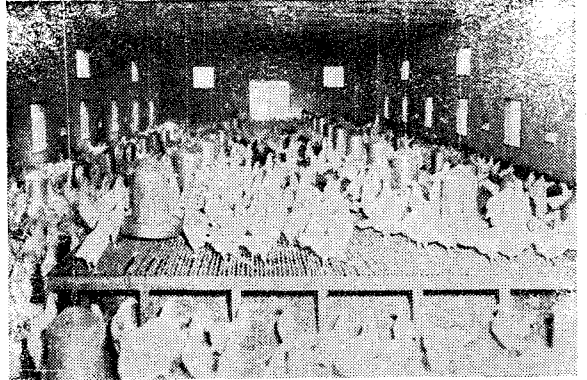
마침내 이젠 지치고 지쳐서 손을 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닭장수는 엄청나게 싸값을 불렀기 때문에 팔기가 아까웠습니다. 절반만 팔아서 사료값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기르기로 하였습니다.

.....
미친놈 미친놈
.....

다시 일년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미쳤다고 닭귀신이 붙었다고 얘기했고 집안에서도 더이상 보기도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경기때의 양계장의 폐쇄로 인한 닭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졌기 때문에 계란시세는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양계를 시작할지 처음으로 얻는 수익—6년만의 수익이었습니다. 이제는 닭이 제 먹이는 할뿐 아니라 사람도 먹여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제는 무척 불안했습니다. 하도 실패한 해 온 저희였기에 지금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는게 거짓말 같았습니다. 계사 한칸을 더 늘이고 병아리 600수를 더 길렀습니다. 좋은 경기를 타고 약간의 무리를 감행했습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공부를 하지 않았던 탓이지요. 평당 15마리 수용해야 할 계사에 30마리씩 수용한 결과 절반 이상의 닭이 죽어 버렸습니다. 환기부족으로 인한 지푸테리와 환경위생의 부족 탓이었습니다. 이젠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닭 1백수를 처분했습니다. 닭장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지옥에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끝장을 보자고 다짐하고 한번만 더해 보기로 했습니다.

.....
빛 닭보로 잠은 부화기 2대
.....

또 땅 50평을 사들이고 흙벽돌로 계사를 지었습니다



<사진은 형제 부화장 육추실>

남아 있는 닭의 알은 종란으로 부화장에 팔았습니다. 외상으로 가져가기 시작한 종란값이 20만원이상이 되자 값을 같이 막연해진 부화장에서는 그들이 쓰는 부화기를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부화기 2대를 갖다놓고 있다가 한번 돌려 보았으면 싶었습니다. 부화란게 그렇게 막대한 수입이 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금시에 속속 늘어났습니다. 점점 부화에서 얻어지는 수입이 늘자 나는 저희집의 재래종에서 나는 병아리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67년도에 『호네가』와 『와렌』을 수입했습니다.

맨 처음엔 신용있고 좋은 병아리를 내는 부화장이란 얘기를 듣기 위해 약한 병아리는 도태를 시키고 병아리를 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인근에서 형제부화장의 병아리는 우수하다라는 얘기가 떠돌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저희집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지방에선 처음으로 아후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서 오토바이로 일주일에 한번씩은 저희병아리를 가져가신 양계장을 꼭 돌아보고 저희경험을 얘기해주며 병아리 건강상태를 살폈습니다. 만일 저희 부화장에서 가져간 병아리가 병이 걸렸을 때는 무료로 약을 사다주며 낫도록 해서 다시 건강해지면 마치 제닭이 병에 걸렸다가 낫은 것처럼 흐뭇했습니다. 형제부화장의 병아리는 논산, 김계, 부여 예산, 공주 등지에 각일각으로 뻗어 나갔습니다. 저는 시간만 나면 오토바이로 지방을 돌아다니며 저의 경험에 의한 양계의 비법을 얘기해 주고 다녔습니다.

.....
현재의 규모 약 1억
.....

현재의 규모는 농장 총 건평 6,000평에 100평짜리 계사 5동이 시설돼 있고 20,000수들이 부화기 12대가 100

어떻게 하고 있나

여평의 부화장에서 병아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충북 청주시 수동에 20,000수들이 부화기 6대, 전북 강경 채산동에 10,000수들이 부화기 5대를 들여놓고 성업중입니다.

종계로서는 1969년 6월에 수입한 와렌P·S가 2,600수가 있으며 69년 8월에 수입한 호네가 P·S가 1,100수 69년 8월에 수입한 필치P·S가 1,500수 와렌 콜머슬P·S가 3,000수가 있습니다. 저희 현재 재산은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 1억 가까이 되지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재산을 저와 가족들만이 쓸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100원을 받으면 50원을 주자

저의 경영방침(?)이랄가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만일 저에게 100원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소비자가 있으면 50원은 도루 돌려주자는 생각입니다. 요사이 새로 일어나는 부화장처럼 무조건 번돈을 저축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다시 저희에게서 절반정도는 가져갈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렇게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아직도 실패의 연속일 것입니다.

저는 68년 12월에 농촌지도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저는 교육받으러 다니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제가 모르던 것을 하나하나 배울때마다 늦게 아는데 후회가 되서 왜 진작 교육을 받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단지 경험이 좀 많다고해서 저에게 뭐든지 물어 보시려 오시는 분에게만 사제 쳐놓고 도와드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해 오면서 느낀점 정부당국에 바라고 싶은 점은 농업 혹은 축산장려로 정부에서 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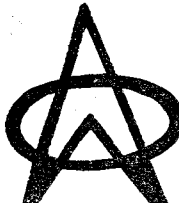
나 대부분 해 줄때 대부분이 특정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사람은 한푼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것을 너무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이런것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저 자신 한푼의 용자도 받아보지 못한데서 나오는 불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양계업자 여러분께는 비록 그것이 안되더라도 남들이 망할때 시작하던 그것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젊은 사람들을

집념의 사나이— 단지 이러한 말로만 표현하기엔 너무나 강하게 양계에 집착하는 사나이 나채춘씨에게 앞으로 하시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종합사료공장을 건설하여 우리의 병아리를 가져가시는 분께 쌀값으로 사료를 공급해 주고 그 쌀값으로 계란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서울의 시장에 비싼 값으로 팔아서 양계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다음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충청농지회를 잘 이끌어서 충청남북도의 젊은이들에게 기술교류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모임으로 이끌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1년에 한번씩 꼭 전국을 일주순회하면서 양계업계의 현황과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산업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현대 경영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신속한 정보수집과 이에 따른 정당한 판단 및 과감한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끝내었다. 한인간이 집념을 가지고 10년만 노력한다면 안될것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의 목소리가 시종 귀에서 맴을 도는 채 형제 부화장을 나섰다.

正確한 成分

優秀한 品質

· 建 国  飼 料

建 国 配 合 飼 料 工 業 株 式 會 社

서울特別市城東區자양동544-7 電52-9284(交)52-2182~7